

200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에제 37,17)

2009년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작된 바오로의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열로 상처 받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도움 속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일치의 사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 사도의 일치 정신을 본받아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 (에페 4,4-5)임을 고백해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는 바오로 사도 개종축일 전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공동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과 깊은 내적 일치를 통하여 전 인류의 일치를 드러내야 할 소명에 따르는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임을 밝히고,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처한 분열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사된 일치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2009년은 이러한 열망이 한국 교회에서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40여 년 간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의 장벽 허물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상호 교류와 만남, 신학자들 간의 대화, 일치를 위한 순례와 간담회, 학술적인 토론과 일치 기도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일치 운동을 벌

여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일치 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위원회와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의 분단 상황 속에서 열망하고 있는 교회 일치 운동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리고자 준비한 일치기도주간 기도문이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받아들여져 올해 일치주간에는 한국 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주간 기도문이 전 세계 교회에서 바쳐지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사는 단순히 그간 일치 운동에 전념해 온 몇몇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선교 역사와 교세 확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구 유럽의 교회와 아시아 교회들이 최근 한국 교회의 위상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일치기도주간의 주제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에제 37,17)는 분열된 이스라엘이 점령 당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종교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기 동족에게 희망을 일으키도록 부름 받은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강복하시고 다시 일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예언자의 말씀은 분단된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열의 현실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교회들 간의 오해와 분열,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분열, 빈부 격차로 인한 분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분열,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 속에 분열된 인

간 세상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의 제도적 장벽을 뛰어 넘어 성령 안에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금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호 간의 오해와 편견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는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일치 정신에 따라 우리 주변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서로 갈라져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순례의 여정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 17,16)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 일치는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 의탁하는 영적 일치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모든 신자 분들이 가족과 직장 동료, 동아리 모임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다른 교파에 속한 신자들과의 만나게 될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금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적 표양을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운 삶의 체험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분열의 현실을 극복하고 참된 일치와 화해를

이룰 씨앗을 이 땅에 뿌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09년 1월 18일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삼환 총회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주교

정교회 한국 대교구 교구장 H.E. Amboriosios
기독교한국루터회 엄현섭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삼환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수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재일 총회장
구세군대한본영 전광표 사령관
대한성공회 박경조 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전병호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박성배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총무

<8일 동안의 묵상과 기도>

제1일(18일) 오랜 분열과 새로운 분열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제2일(19일)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
제3일(20일) 경제적 불의와 가난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
제4일(21일) 환경 위기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
제5일(22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
제6일(23일) 질병과 고통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
제7일(24일) 다양한 종교를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제8일(25일) 갈라진 세상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본당소식

● 평일미사 시간및 성시간

수 오전 10시 목, 금 오후 8시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 신임 사목위원 및 구역장 임명

자문위원 : 김흥식 (헨리)
회 장 : 장명길 (바오로)
부 회 장 : 윤명원 (요셉)
총 무 : 한택중 (막시모)
재정분과장: 류무열 (레오비노)
전례신심분과장 : 정경래 (안스가리오)
선교분과장 : 박재영 (바오로)
공동체분과장(총구역장) : 이동기(테오도로)
교육청소년분과장 : 노동원 (라자로)
관리분과장 : 이명희 (스테파노)

Kitchener 구역장 : (겸) 이명희 (스테파노)
Cambridge구역장(Cambridge, Guelph):
박용대(바오로)

Brantford 구역장 : 이민(프란치스코)
Waterloo 1구역장(Waterloo, Stratford) :
(겸) 박재영(바오로)

Waterloo 2구역장 : (겸) 이동기 (테오도로)
Waterloo 3구역장 : 오세종 (미카엘)
Waterloo 4구역장 : 최우석 (F. 사베리오)

울뜨레야간사 : 김현태(요셉)
주일학교 교장 : 노재현(아킬레오)
사무봉사자(Secretary) : (겸) 이상희(세라피아)

* 분과위원과 일부단체장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 총구역장을 제외한 경직은 봉사자가 있을 때
까지 한시적입니다.

● 역대 공소회장님들과 사목위원, 단체장, 본당
설립추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설 합동위령미사 시간 변경 안내

1월 25일(주일) 오후 3시 - 본당
1월 26일(월) 오후 5시 - 소성당(교육관)

● 로고스회(성서모임) 회원모집

함께 하실 분들은 장용경(루시아) 자매,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에게 신청하십시오.

● 사제서품 14주년을 맞이하신 신부님 축하드
립니다. (1월 25일)

● 폐제 음악의 밤 안내

1월 25일(주일) 오후 6시부터 St. Anthony
Daniel 주관으로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2009년꾸르실료 쇄신피정 안내

일 시 : 2009년 1월 30일(금) ~ 2월 1일(일)
장 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 가 비 : \$ 200.00

신청마감 : 2009년 1월 20일

문의: 요셉 김현태 간사 (519)742-3626
이메일) jhtkim@gmail.com

●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안내

장소 : 성유대철 해밀톤 성당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

문의: 막시모 한택중 (519) 883-8488
이메일) tj1234@catholic.or.kr

● 다음 주는 성전건립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전을 갖기
위해 자발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미사지향 신청

본당에서 마련한 봉투에 작성하셔서 전례신심분
과장을 통해 미사 전 제대에 봉헌하십시오.

● 소성당에 필요한 제구, 제의, 14처, 행렬용
십자가, 제대용 독서경본 등을 봉헌하실 분은
주임신부님께 말씀하십시오.

2009년 1월 11일 헌금 내역

주일 헌금 : \$ 770.00
교 무 금 : \$1505.00
소 성 전 : 익명 \$ 900
(한국에서 익명 ₩ 500,000)

Total : \$ 3175.00



KW한인천주교회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lucasho@caincheon.or.kr

사무봉사자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화(구역방문), 수 오전 10시,
목 오후 8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통신교리 이후 4회 특별교육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04호

2009. 1. 18.

연중 제 2 주일

미사전례

해 설 이 민 차주 해설 김 근호

화답송 (성가 362)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주님의
뜻을 즐겨 이루나이다.

복음환호송 (성가 365) ◎알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은총과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도다.◎

영성체송 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하나이다.

성가

입 당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봉 헌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성 체 (160) 하느님의 어린 양
되 장 (39) 하나되게 하소서

	독	서
1월 18일	정경래	정문진
1월 25일	백옥현	박인선
2월 1일	김동규	김은옥

	봉	헌
1월 18일	박재영	박경미
1월 25일	정경래	정문진
2월 1일	백옥현	박인선

	복	사
1월 18일	박규환	구한힘
1월 25일	류지현	이현재
2월 1일	구한힘	노승범

	친	교
1월 18일	장미팀	
1월 25일	친교 없음	